

무임승차

역사는 신기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저 옛날이야기라고만 생각했던 역사 이야기는 하나씩 알아갈 때마다 가슴이 벅차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다. 그렇다고 슬프고 아프지만은 않다. 자랑스럽기도 하다.

윤봉길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안창호 선생님의 책을 읽다 보니 역사가 궁금해졌고 하나씩 알아가다 보니 작년에는 무후선열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름 없는 독립운동가들... 무후선열... 무후선열을 알게 되었을 때 혹시 이름 모를 다른 위인들도 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일제 시대가 아닌 다른 역사를 찾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만나게 된 남원성 전투. 가장 풍족한 한가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아라.

그 한가위인 추석날, 힘이 없던 우리나라는 명나라 군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교통산성을 버리고 남원읍성에서 전투를 하였다. 잘못된 판단 하나로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집이 사라져버렸다. 백성들은 돌과 농기구로 저항하였지만 소용없었을 것이다. 시체가 산처럼 쌓여 마을 전체가 무덤과 같았다 하니 그곳은 생지옥이 아니었을까... 성 안에는 무덤을 만들지 않는다 하는데 많은 시체들을 성안에 묻어야 했다는 건 너무 슬펐다. 만인의총은 그렇게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풍족한 명절인 추석. 붉은 단풍 위로 더 붉은 피가 남원성을 들렀을 것이다. 남원성 전투는 패배하였지만 남원성을 지키는 붉은 피의 정신은 이순신 장군과 만나 결국은 승리를 이루었다.

우리나라 역사를 들여다보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왜 우리는 내가 사는 곳을 지켜가며 살아야 했을까, 원래부터 나의 집이고 내가 사는 마을인데 왜 지켜야만 했을까. 그리고 대단하다는 생각도 든다. 결국에는 지킨다. 내가 사는 집, 내가 사는 곳, 그리고 후손들까지 지켰다.

역사를 보다가 한 번씩 생각에 잠길 때가 있다. 저 시대에, 저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TV속에 나오는 역사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우리나라에 위기가 닥치면 이 시대의 유관순, 윤봉길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유전자들 가지고 있다.’

무섭긴 하지만 내가 저 시대, 저 자리에 있다면 나도 나라를 지키려 노력하지 않았을까... 역사에 기대어 평화로움을 만끽하다가도 역사를 알게 되면 마음이 시리다.

하지만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역사에 무임승차하지 않아야 한다. 이름 모를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 맞이한 지금의 시간을 나는 무임승차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나라를 지켜온 영웅들이 있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새로운 역사 이야기를 찾아가 봐야겠다.